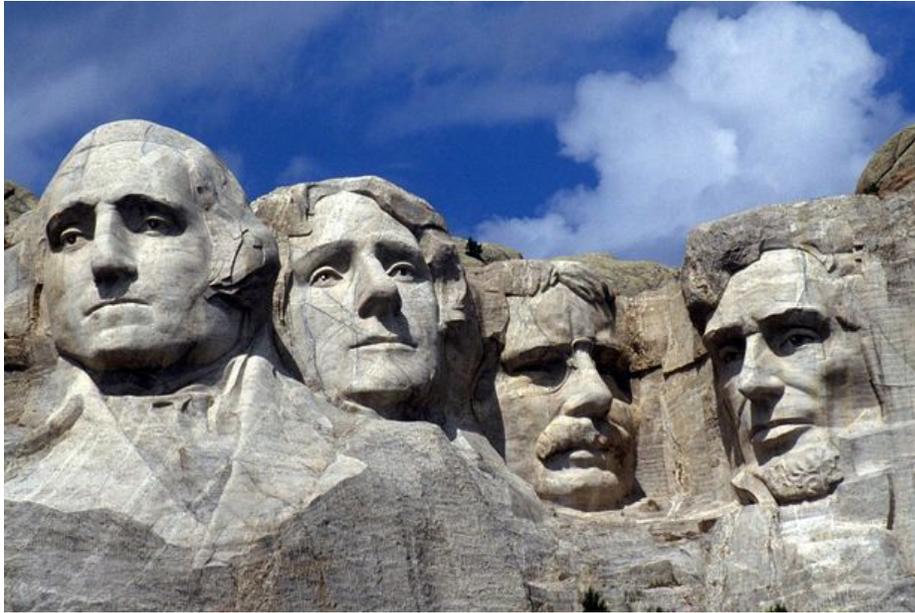




코람뉴스 (2020 년 2 월)



“... Let us place there, carved high, as close to heaven as we can, the words of our leaders, their faces, to show posterity what manner of men they were. Then breathe a prayer that these records will endure until the wind and rain alone shall wear them away...”

Gutzon Borglum, Mount Rushmore

Sculptor, 1930

(위의 사진 설명과 해석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2 월의 프로그램 안내

- ♣ '멋진 노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주제이지요... 하나센터 직원이 직접 코람에 오셔서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10 시까지 1 층으로 오세요. 당연 간식도 있답니다!!!
- ♣ 김선웅 발의사의 코람 방문 날짜는 20 일 오전 9 시입니다.
- ♣ 나일스 요양원 탐방이 20 일에 있습니다. 11 시에 출발하여 2 시에 돌아올 예정이니 원하는 분은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버스의 좌석 사정으로 6 명 제한입니다.
- ♣ 행복시리즈 13 번째 세미나는 27 일 2 시 301 분에 있습니다. 주광민님께서 치매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주네요.
- ♣ 2 월의 게임데이는 28 일로, 2 시까지 210 호로 오세요.

2 월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성진님 (10 일, 311 호), 양길자님 (28 일, 404 호), 윤영란님 (9 일, 402 호)



알림

✂ 행복시리즈를 주관하는 주광민님께서 기억력테스트 또는 인지능력테스트를 개인 가정을 방문하여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분들은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 17 일은 대통령의 날로 공휴일입니다.

*** 2월에 함께하고 싶은 글

식물의 위로

다행히 인간이 초록색 식물로부터 혜택을 받고 행복감을 느끼는데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실내에서 초록색 잎의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열대 우림에 사는 식물이다. 이 식물들은 경쟁이 치열한 울창한 숲속에서 더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 잎을 크게 발달시켰다. 그리고 실내 공간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 식물들은 신선한 공기를 내뿜고 적절히 습도 조절을 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긍정 에너지와 안정감을 준다....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초록 식물들을 바라보면 문득 이 세상은 복잡한 인간사로만 채워진 곳은 아니라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숨쉬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때, 식물은 우리와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인간의 삶은 식물과 공존할 때 균형을 이룬다. 반려식물들은 더 넓은 위대한 자연과의 연결고리로서 나에게 손을 내민다. 자연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를 보살핀다는 생각을 가질때, 항상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도 충실하게 되므로 근원적인 편안함을 느낀다.

박원순 “식물의 위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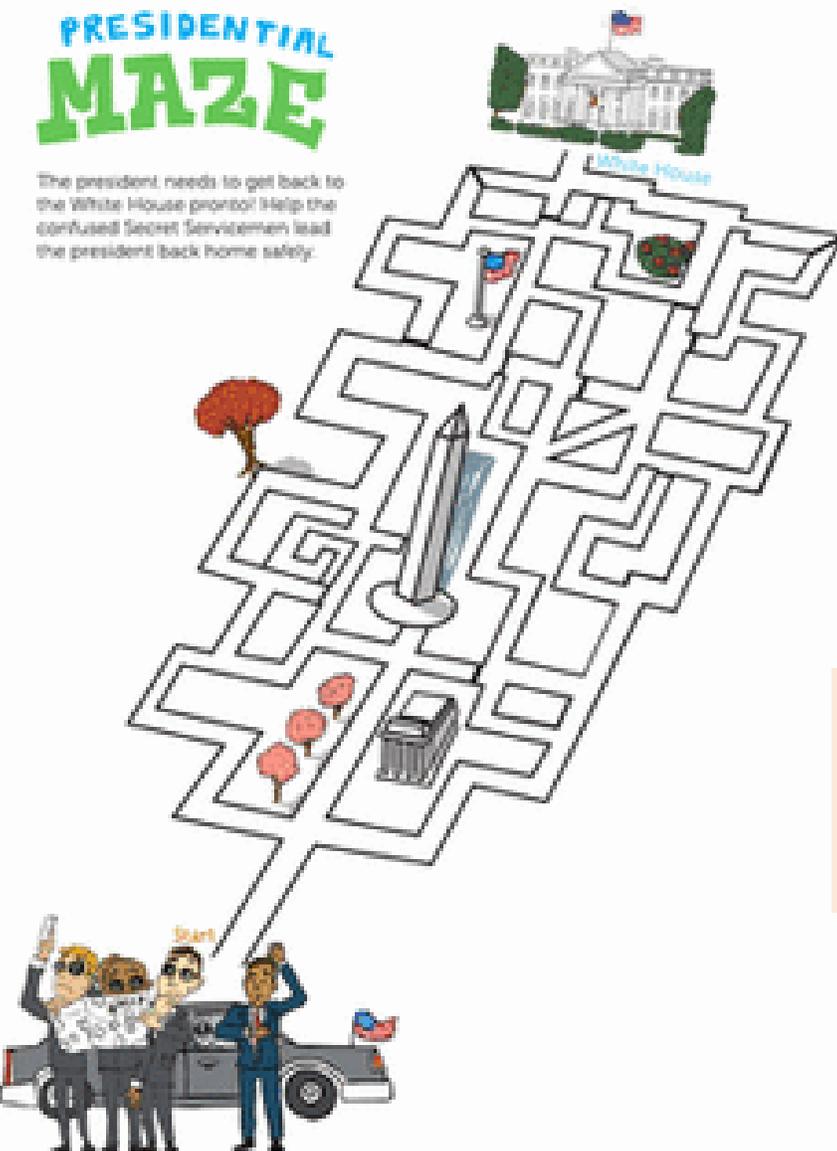
시카고 문인회 방두표님의 2월의 고사성어 ***

동가식, 서가숙(東家食, 西家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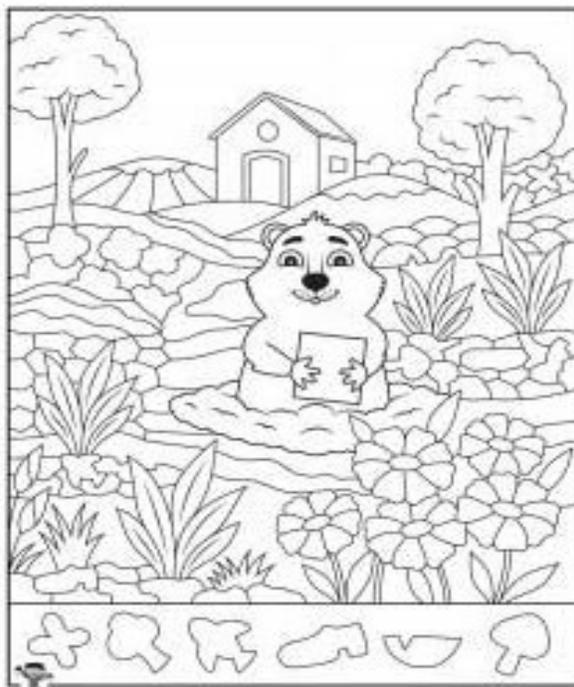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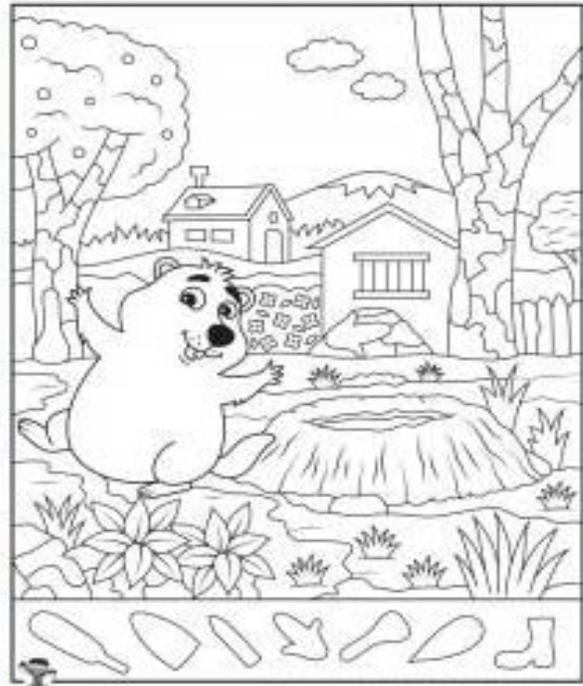
글자대로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는 뜻의 고사성어 이지만, 그러나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에게 뭐하냐고 물으면 '동가 식 하고 서가 숙(東家食, 西家宿)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는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 옛날 어느 집에 무남독녀(無男獨女)가 있었습니다. 귀엽게 고이고이 잘 키워서 이제는 시집갈 혼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처녀가 16 세가 되면 혼기가 찼다고 하고, 20 세가 되면 과년(過年)하여 노처녀(老處女)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동쪽에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집안이 굉장히 부자 입니다.먹고사는 것은 전혀 걱정 없으며 하인들도 많아 색시는 손에 물도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라면 신랑감이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른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에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그 총각은 인물도 훗칠하게 잘 생겼고, 배운 것이 많아 아는 것도 많으며, 과거시험도 준비 중이라 장래가 촉망되는 신랑감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집안이

가난하다는 점입니다. 그 점만 빼면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신랑감입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러 본인에게 의사를 직접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애야! 너는 동쪽 사람이 맘에 드느냐, 서쪽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딸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하기가 거북하면 행동으로 표시해도 된다. 동쪽 사람이면 오른손을, 서쪽사람이면 왼손을 들어보아라. 그랬더니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딸에게 '애야! 이게 어찌된 일이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의 대답은 '아버지! 동쪽 신랑감은 사람이 좀 모자라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이니까,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신랑감은 가난하지만 사람이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니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즉 두 가지 모두 실리(實利)를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처녀가 말한 두가지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利益)만을 골라서 취하는 것을 두고 '동가 식, 서가 숙 하겠다.'는 고사성어(故事成語)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한 고사(古事)로 고려(高麗)가 망하고 조선(朝鮮)이 세워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국공신(開國功臣)들을 불러 연회(宴會)를 베풀었는데, 이 때 어느 대신이 기생인 '설중매'(雪中梅)에게 그를 희롱하는 말로 빈정거리며, '너는 낮에는 동쪽집에서 먹고, 밤에는 서쪽 집에서 자는 기생이니, 오늘 밤은 나와 보내지 않겠느냐?'기생도 이에 지지 않고 '아무렴요. 어제는 고려를 섬기고, 오늘은 조선을 섬기는 대감이니 저와 밤을 보내시기에 꼭 알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요즘 세상에는지조(志操)없이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여기 저기 동쪽이든, 서쪽이든 빌붙어사는 행태를 꼬집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얘기는

<대동기문>(大東奇聞) 책에 실려 있는 고사입니다. 동가 식, 서가 숙(東家食, 西家宿) 하며, 자신의 신념을 버린 체, '욕심(慾心)만을 위해 지조 없이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철새와 같은 간신배(姦臣輩)'를 두고 이르는 말로도 쓰입니다.



옆의 그림은 대통령 경호원들이 워싱턴 디시에 있는 백악관을 찾아가기 위해 지도를 열심히 보고 있네요. 우리가 길을 찾아줄까요???



2 월 2 일은 Groundhog Day 입니다. 동지와 춘분의 중간정도로 봄이 오려면 얼마나 남았나를 알아보기 위한 게임이지요... 1886 년 이후로는 매년 각 지방마다 행사를 하기도 해요. 일리노이주의 우드스탁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1 월 30 일부터 2 월 2 일까지 축제를 한답니다.

위의 그림은 숨은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각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사우스 다코다주, 러쉬모어 산에 있는 4 명의 대통령 조각상에
대해서 입니다. 조각가는 ‘거트존 보그럼’으로 1930 년에 완성되었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리고 애브라함 링컨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각가가 이것을 조각하며 마음에 새기고자 했던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국에 좀더 가까이, 높은 그곳에 우리 지도자들의 얼굴과
어록들을 조각해 놓자,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려주자.*

*그 얼굴과 어록들이 비바람에 깎여없어질때까지
그들의 기도를 노래하자...”*

